

experience
Life As Mission

151st, Spring, 2024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인터서브 필드 : 라오스 _ 이조은 선교사

사랑 애앳를 쓰며, 천천히... _ 제임스 선교사

미주, 북태평양 지역 포럼 리뷰 _ 쿠반 선교사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Uijeongbu

ESTD. 1983



개교 40주년 기독교 국제학교

- 초중고(G1-G12) 내외국인 미국 커리큘럼 영어교육
- 경기도 교육청 인가 외국인학교
- 미국서부교육위원회(WASC), 국제기독교학교연합(ACSI) 인가 학교
- 고급교육과정 AP(Advanced Placement)제공
- 전 교사 교사자격증 소지(E7 비자)

ACCREDITED BY



OPEN ENROLLMENT



Contact Us

+82 31 855 1277
 contact@icsu.kr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28, 11608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04 미주, 북태평양 지역 포럼 리뷰 _ 쿠반 선교사

08 기대 _ 송기태 부대표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11 발견하다! 미션얼 피플 : '현장과 사람이 우선이다'

비비앤 스테이시의 삶 _ 공갈렙 선교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14 인터서브 필드 : 라오스 _ 이조은 선교사

19 인터서브 스토리 :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 애애했을 쓰며, 천천히... _ 제임스 선교사

23 미션얼 북 : 인도, 대립과 공존 _ 위나라 선교사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 인터서브 이슈

남미의 환대와 친절 속에 더욱 성숙하고 친밀해진 인터서브 공동체

ANP 지역 포럼 리뷰



쿠반 선교사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브라질에서 ANPAmerica & North Pacific(미주 및 북태평양) 지역의 리더들이 모이는 “지역 포럼(Regional Forum)”이 열렸다. 인터서브는 2년을 주기로 전체 리더들이 모이는 “LCLeaders Consultation”라는 중요한 모임을 갖는데, 중간에 한번은 인사 담당자들이 모이는 “인사담당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또 한번은 “지역 포럼”이 열린다.

포럼이 열리는 1월의 한국은 추운 겨울이지만 브라질은 반대로 무더운 여름이다. 따라서 브라질 여행은 겨울옷과 여름옷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반드시 한번은 경유해야 하는 30시간 가까운 장거리 여행이었다. 허리가 안 좋은 나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여행이었다. 그러나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하니 인터서브 브



▲ 우리를 환대해준 브라질 오피스팀

라질 오피스의 친절하고 환대하고 넓고 푸른 브라질의 자연이 긴 여행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주었다.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해보니 브라질 대표인 비라가 두명의 스태프와 함께 우리를 직접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를 섬겨준 남미 특유의 친절함과 낙천적인 문화는 참여한 우리 모두를 더욱 친밀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큰 힘이 되었다.

포럼 기간동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ANP 지역에 속한 각 팀이 자신들의 팀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었다. NO^{National office}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남미, 한국, 대만이 참여하였고 CT^{Country team}(필드팀)로는 중국, 몽골, 동북아살롬 팀과 CMM(중국선교운동) 팀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못한 홍콩과 일본 팀을 위해서는 RD^{Regional Director}인 패트릭이 보고를 하였다.

ANP지역은 인터서브의 5개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이자,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타이완 NO 팀이 세워져 성장하고 있고, 중국어권에서는 CMM^{China Mission Movement} 팀을 만들어 중국 교회가 인터서브와 함께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오랫동안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던 일본도 최근에 공식적인 선교지로 받아들여졌고 일본 교회에서 인터서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 및 북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팀은 남미(Latin America) 팀이다. 남미 대륙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브라질 팀 만 존재했었다. 우리는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2021년 말 드디어 칠레에 남미 오피스를 세웠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미의 스페인어권 국가인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15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과테말라를 비롯

해 더 많은 국가에서도 인터서브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미 오피스는 현재는 남미 스페인어권 전체를 대표하여 칠레에 하나의 팀으로 존재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남미의 다른 나라들에도 독자적인 팀들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서브에서는 4년마다 전체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 우선순위(International Priority)”를 결정한다. 현재 인터서브의 국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인터서브의 전 공동체가 제자훈련의 여정을 함께 하며,
- 2) 새로운 재정 자원의 개발과 공유,
- 3) 좀 더 융통성 있고 민첩한 구조와
- 4)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등이다.



이번 지역 포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인터서브의 국제 우선 순위들을 점검하고 각 팀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인터서브코리아는 이미 전체 인터서브 공동체에서 가장 큰 팀인데 양적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다.

인터서브코리아는 그동안 교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제자화(Discipling the church) 해온 경험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다른 팀들에게 신선하고 큰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구 교회의 쇠퇴와 더불어 선교 재정에 대한 개발과 공유에 대한 이슈는 현대 선교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번 포럼에서도 이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불과 30여 년 전에 신생팀으로서 국제본부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온 한국 팀이 이제는 다른 팀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브라질과 남미 팀은 특별히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을 언급하며 고마워했는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 좋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선교 환경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공동체의 사례로서 동북아살롬(NEAR) 팀의 평화와 화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의 중국, 일본, 북한, 남한 네 나라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북아살롬 팀은 전통적인 구조와 관점을 넘어서는 융통성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는 팀이었다. 동북아살롬 팀은 한 국가에 속하지 않고 국제 본부의 미주 및 북태평양지역에 속한 최초의 필드 팀이며 한 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이슈인 평화와 화해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포럼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다루고 있었지만, 오히려 남미와 미주 지역의 리더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화목케 하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더 크고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주 및 북태평양 지역의 리더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인 시간이었다.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교적 소명을 함께 이루어 가는 과정에 정말 신실하고 좋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특별히 남미 특유의 낙천적이고 친절한 환대로 이번 지역 포럼을 섬겨준 브라질과 남미 오피스에 감사를 드린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달려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기대



송기태 부대표

설 명절을 앞두고 아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이번 설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 질문을 듣고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대답이 기다리고 있었다. “음, 별로 없어요. 늘 그렇듯이 별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죠.”

그 질문을 받은 이후에 나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날에 신학생들과 함께했던 북클럽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북클럽에서는 “하나님의 선교”(크리스토퍼 라이트 저)를 스터디하고 있었다.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모임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대나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이런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큰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모임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고, 나는 마음으로 설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의 설 명절 루틴은 대략 이렇다. 설 전날 식당에서 모여 함께 식사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떡국을 함께 먹고 세배하고 성묘를 간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성묘를 간 자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일이 생겼다. 마흔이 다 된 조카가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한 후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삼촌,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만 부활하나요?” 조카가 이런 질문을 하는 배경이 있었다. 우리 집안의 고조부부터 모셨던 산소를 작년 가을에 전부 정리하고 아버지 대의 산소들만 남겨서 새롭게 단장했는데, 조카가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그 질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과 육, 모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부활도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카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흙이 되는데,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뼈가 썩어서 없어진다고 한들, 그 육체의 부활을 이루시지 못하겠나?”

성묘를 마치고 식구들이 다시 어머니 집에서 모였다. 가족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산소에서 질문했던 조카가 기독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조카는 예전에 얼마 동안 교회에 출석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날도 조카는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조카의 질문이나 비난에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놀랍게도 대화를 마치면서 조카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올해 설은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집안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마무리했다.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정작 그가 풀려나서 제자 공동체로 갔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사건이 생각났다. 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왔고, 여러 모양으로 힘써 왔지만, 이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 가족 구원을 위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해졌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었다. “주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 후에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의 한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다. 나는 아버지께 그 교회에서 아들이 설교한다고 말씀드렸다. 차마 오시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였

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교가 있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형수님이 예배에 참여했다. 그날,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때에도 참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생 때 미션 스쿨에 다니는 사촌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것이 집안 전체에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다. 나는 청년 때부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었다. 그 가운데 제사 문제로 집안의 제사장이셨던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과 심한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오셨다.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꽤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형님도 아직 믿음이 깊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이번 설을 보내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나와 아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던 기억이 새로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가르쳐 온 나 자신의 믿음에 큰 울림과 도전이 있었다. 다시 한번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올해의 설은 지나갔지만, 아내가 내게 했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은 올해에, 아니면 이번 달에, 혹은 이번 주에, 내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중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믿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힘이며, 출근하게 하는 힘이며, 학교에 가게 하는 힘이다. 우리가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해야 하는 소망의 기대,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

☐ 미션얼 People

발견하다!

Missional People

‘현장과 사람이 우선이다’ 비비앤 스테이시의 삶

공갈렘 선교사



무신론자에서 무슬림 사역자로

1928년 영국 런던 근교에서 태어난 비비앤 스테이시는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런던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까지 이런 세속적 영향은 그녀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과 탈종교적 현상이 강하게 대학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런던대학교는 탈기독교적 세속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난 친구 바바라를 통해 기독교인 대학생 기도 모임을 소개받게 되고 그 모임이 IVF 복음주의 학생 모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을 찾는 학생들의 모습, 자신들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신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비비앤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친구 바바라의

삶 속에서 보이는 평화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시기였기에 마음에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놀라움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중국에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비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삶의 평화를 찾아 해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현장 속으로 - 파키스탄 UBTC(연합성경학교)에서의 20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한 1947년 8월 15일, 두 종교 집단의 정치싸움으로 인해 힌두 중심의 인도와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1954년 비비안은 파키스탄의 구즈란왈라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연합성경학교(UBTC) 교수 요원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슬림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키스탄 여성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한 이 학교가 청년 때까지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처럼 종교 제도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파키스탄 여성들에게 그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UBTC 교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UBTC에서 모든 과정을 그 지역 언어인 우르두어로 진행했고, 장/단기 혹은 통신 과정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의 상황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에스더 존이라는 학생이 성경 교사가 되어 열심히 사역하다 무슬



림 고통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듯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여성 성경 교사를 배출하는 거의 유일한 학교이기에 비비안은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헌신과 열정이 파키스탄 여성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따라-중동 디아스포라에게로

비비안은 현장과 사람을 중시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로 UBTC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헌신적으로 섬긴 것과 영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인 우르두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했던 점, 파키스탄에서 그곳 여성들과 함께 살며 제자의 삶을 보여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 중심의 비비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역은 바로 파키스탄 디아스포라 사역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오일과 건설 붐으로 외국인 인력이 그곳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파키스탄 기독교인 자매들도 대거 이주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비비안은 중동에 가서 그 자매들을 돌보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중동 디아스포라 사역입니다.

초기엔 이주 노동자로 간 파키스탄 자매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고 이는 중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 사역자들이 인터서브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비비안의 열정이 결국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는 결과까지 낳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역에 있어서 현장성과 사람 중심성은 우리 일상의 선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참고도서> 이찬우, 『프론티어 선교학』, CLC, 2020, pp. 386-462.

▣ 인터서브 필드

라오스

이조은 선교사

라오스 소개

라오스는 다른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열강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18세기에는 태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19세기에는 프랑스 보호령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잠시 일본의 군사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이후 1953년 입헌군주제의 왕립라오정부를 세우며 독립하였지만, 인도차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열강들이 개입하면서 오랜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1975년 라오애국전선(파뻏 라오)가 공산혁명에 성공하면서 왕정을 폐지하고 오랜 내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오스의 공식 명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면적	2,368만 ha 세계83위 (2021 국토교통부, FAO 기준)
수도	비엔티안 (Vientiane)
인구	773만 6,681명 세계102위 (2024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GDP	157억 2,438만 달러 세계125위 (2022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민족(인종)	공식 종족 50개 (2018.12. 라오스 국회 채택)이며 라오름(50%), 라오통(30%), 라오송(10%)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름 : '저지대 라오족'이라는 뜻으로, 전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에서 수전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라오통 : '구릉지 라오족'으로,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화전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라오송 : '산악지 라오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라오스 내전 당시 비엔티안 정부측과 혁명군 측으로 나뉘어 많은 수가 희생되었습니다. 라오송 중 가장 수가 많은 민족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미국에 협조적이었던 관계로 전후 상당수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언어	라오어 (태국어와 유사)
종교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종교 포교 불허
기후	열대 몬순 기후, 우기: 5월~10월, 건기: 10월~4월

라오스는 종교적으로 소승불교의 나라로 불립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소승불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토속신앙의 비율이 높습니다(불교 69%, 토속 신앙 28%, 기독교 1.5%). 라오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인준한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교 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 종교적인 교리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라오스는 청년층을 비롯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한계가 큼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2018년 기준 초등학교 순 취학률은 98.8%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 교육으로 갈수록 취학률이 매우 낮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순 취학률이 크게 낮아져 약 34.7%에 불과하고 대학 취학률은 이보다 낮은 18%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유행을 지나면서 대학 취학률은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라오스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큼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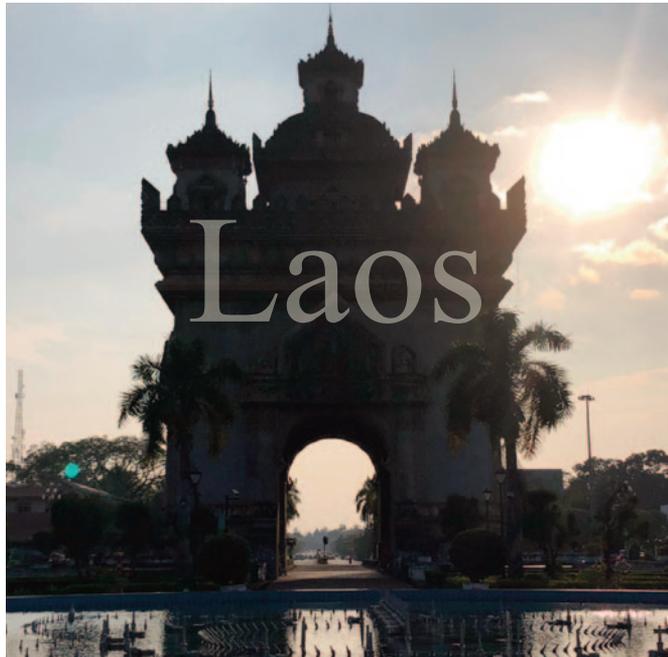
하고자 많은 라오스인들이 해외 노동자로 나섰습니다. 현재 라오스의 인구는 약 773만명입니다. 작년 라오스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약 50만명이 해외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 100만명 이상이 라오스를 빠져나가 해외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교 상황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로 선교사의 직접적인 전도와 교회개척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개척은 현지 교단과 현지 사역자의 협력 하에 이루어집니다. 공산정부와 불교도에 의한 사회적인 박해가 여전히 있지만 라오스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여러 총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선교사들이 교육, 스포츠, NGO, 의료, 비즈니스 등 여러 영역에서 총체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의 경우 교육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수도 비엔티안 뿐 아



나라 여러 지방에 학교나 학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음악, 미술, 문맹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스포츠 영역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구와 축구의 경우는 라오스 국가 대표를 양성하는 등 라오스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필요

라오스에는 많은 선교적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학 교육 사역

라오스 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울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역자의 경우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어려움이 큼니다. 이는 많은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가 스스로 건강한 사역자와 성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신학 서적이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사역

많은 선교사들이 교육 사역을 해왔고 현재도 많은 선교사들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오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 사업의 대부분이 수도인 비엔티엔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 외곽 지역과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 및 고등 교육 사업이 더욱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의료 사역

라오스의 의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의료 인프라와 의료 전문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전문인을 양성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 활동과 함께 의료 보건 관련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라오스인들이 겪고 있는 이중 많은 의료 보건 문제는 의료 보건 지식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 생태보호 사역

개발 도상국인 라오스에서 생태보호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태보호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사역입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많은 시냇물이 이미 폐수가 되어 악취를 뿜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메콩강 젓줄기를 통해 흐르는 강물들이 수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 제품을 즐겨 사용합니다.

마지막, BAM(Business As Mission) 사역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실직자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해외 노동자로 나가고자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노동 인구의 1/4 정도가 현재 해외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BAM 사역은 직업 창출 자체로 현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라오스 땅에서 직업을 갖고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라오스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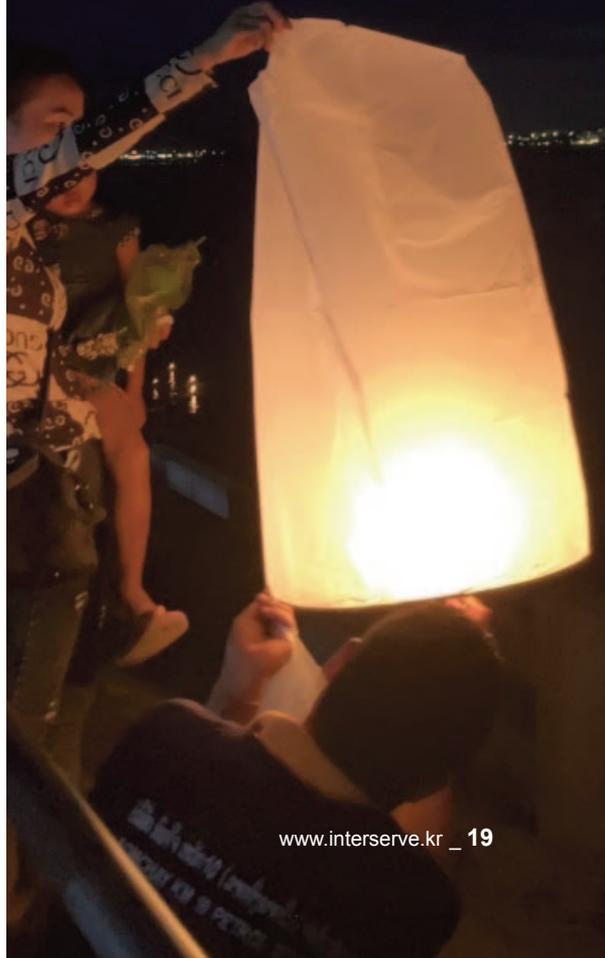
1.
라오스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2.
라오스 교회가 건강한 신앙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3.
라오스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4.
복음의 총체성과 풍성함이 라오스 전 영역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총체적으로 이 땅을 섬길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 애愛를 쓰며, 천천히...

이 나라에 온지 8년 그리고 중남부에 위치한 C 거주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 동안 가족은 이곳 생활에 적응하려고 꽤나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태권도를 통해 정착하기 위해 교육체육부, 공무원들, 학교들, 교사들, 학생들, 태권도 관계자 등을 만나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유니스는 가정을 돌보느라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타국에서 항상 가족을 우선시 하며 식사 준비와 집 정리 등 가정의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세 자녀 울, 은, 승은 나름대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힘썼고 특히 현지어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느라 애를 많이 썼을 듯 합니다. 다만 큰 딸 울이 몇 년 전 신장병에 걸린 것은 부모로서 참으로 미안한 아픔입니다.

모두 같이 애 쓴 결과일까요? 제임스는 교육

제임스 선교사



체육부에서 비자를 받으며 태권도 지도자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학교들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학생들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범들과 체육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유니스의 헌신으로 집은 안락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울, 은, 승 모두 학교 생활을 잘 하며 반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집에 놀러 오게 하고 친구 집으로 놀러도 가며 현지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 것은 아이들이 애 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울의 신장병 상태가 좋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가족 모두가 이곳이 제일 편한 우리 집이고 우리 동네 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자체, 일상이 된 자체가 가족 모두가 애 쓴 삶이라 생각합니다.

제임스는 아침이면 오토바이에 시동을 겁니다. 매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푸르른 자연을 보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로 갑니다. 제임스의 가장 좋은 일터는 학교입니다. 제일 가까운 학교는 왕복 60km, 먼 곳은 왕복 400km, 총 네 개의 시골 학교를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가는 먼 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걱정하며 안 힘드냐고 묻습니다. 물론 피곤하지만 결코 힘들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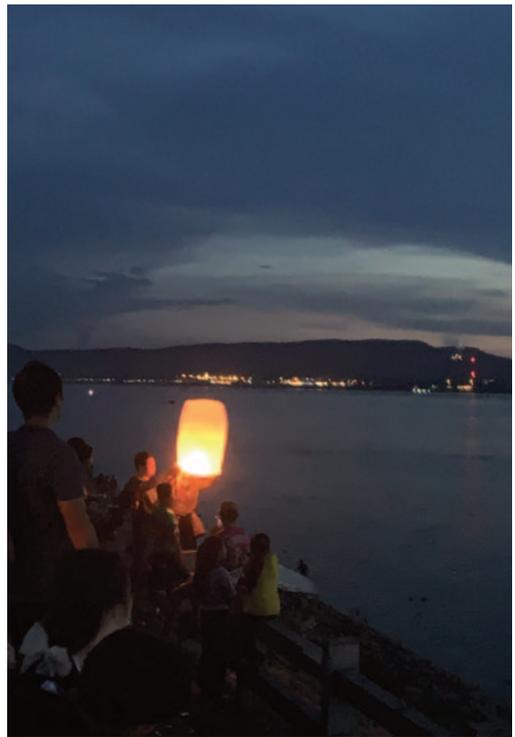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제임스를 기다리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길은 한 없는 즐거움이 됩니다. 오고 가는 수 시간 동안은 오토바이 위가 기도의 장소요 찬송의 장소요 말씀을 듣는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가는 길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A가 오려나? 지난 주에 B가 아프다고 했는데 다 나았으려나? C는 매주 설렁설렁 배우는데 오늘도 그러려나? D는 오늘도 열심이겠지? 비가 많이 오면 결석이 많아지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네, 오늘은 어떤 학생이 새로 오려나?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제임스의 선교의 장은 오토바이 위에서 자연과 함께 펼쳐지며 학생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기 사역 4년간 태권도로 이 사회 속에 정착하려 했던대로 잘 되어진 우리는 이제 그 목적을 사람에게로 맞춥니다.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역 속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한 대입일 수 있지만 안식일을 선교라 생각하고

이를 선교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안식일 즉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려 하고 그 에너지를 흘려 보내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글썽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천천히 기다리려 합니다.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다보니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지만 그 중 몇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X학교의 Dal학생은 고1 여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처음 만나고 여러 번 수업을 하면서 제임스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Dal은 항상 약간 경직되어 있고, 여유롭지 못하고, 꾸증을 듣게 되면 분노나 창피함이 얼굴에 바로 묻어 나옵니다. 제임스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더욱 이 학생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Dal은 축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요령 피우지 않고 제일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 Dal을 학교의 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학생을 보면 5년 전 첫 학교인 P학교의 주장 A가 생각납니다. A도 Dal과 성향이 비슷했지만 더 밝았고 여유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A를 학교 졸업할 때까지 더 잘 지도해 주지 못하고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기에 X학교의 Dal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경직과 억압된 마음 같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그것마저 사랑해주는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주심을 알게 되길 기도합니다.

P는 고2 남학생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새



로 시작한 k학교의 학생인데 남다르게 성실하여 미리와서 준비하고, 재능도 있어서 태권도도 잘 합니다. 어머니가 이혼 후 방콕에서 새 남편과 살고 있고, P는 이곳에서 할머니와 살아갑니다. 매년 한 차례 정도 방콕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복 형제도 만나 잠깐동안 함께 살기도 하지만 언제나 엄마를 그리워하는게 눈빛에 묻어 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한국처럼 이곳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손 가정의 아픔은 적지 않은 상처라 생각되기에 더욱 P학생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Xa학교에는 태권도를 새로 시작한 4명의 중1-2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임스를 보면 스윙 다가와 인사를 하며 웃습니다. 발차기는 멋이 없고, 운동에 재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며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제임스가 더 정신이 없고, 운동에 집중을 못하니 화도 나서 꾸중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10분 후면 다시 꿈틀하고 그들의 웃음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고 이곳에도 있습니다.

믿음은 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도 말로만 설명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말 속에 삶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으려 애를 쓰긴 하지만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과 신뢰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약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뢰를 주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에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내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사역의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조급하지 않겠지요.

우리 가정 선교의 지향점은 이 학생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없는 친구,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 친구처럼 될 수 있겠지만 도구를 어느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친구가 되거나, 도구에 목매어 도구 때문에 맺어지는 상하적 관계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매개 없이 사랑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어떠한 요구 없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

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곳의 학생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은 친구가 되어 주기에는 모자라겠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친구 예수께서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정이 살아가면서 부단히 愛(사랑·애) 쓰는 향기로 전달되길 바랄 뿐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愛가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

MISSION BOOK



인도, 대립과 공존

공영수 지음, 소장각 발행, 2023년.

인도의 현재를 이해하면 우리가 보인다

인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variety}이다.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종족, 다양한 문화가 있다. 14억명 인구로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경제적 성장이 빠른 나라들 중 하나이다(2023년 7.2%). 어느 누구도 인도가 세계의 강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최근 BBC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번 달 인도 법원에서는 한 동물원의 사자 이름에 대한 고발과 그 판결이 있었다. 그 사자들의 이름은 힌두 여신 “싯따”와 무굴제국의 황제 “악바르”였다. 이 기사를 읽는 인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무슬림 왕과 힌두 공주의 사랑을 다룬 영화, ‘조다-악바르’(Jodhaa Akbar, 2008년)를 떠올릴 것이다. 어쩌면 이 동물원에서는 힌두와 무슬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힌두 극우주의를 표방하는 BJP 정권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기에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에 모든 다른 종교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한다. 지금까지 이런 갈등과 대립하게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과업을 달성하며 집권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사는 델리에 있는 600년된 모스크가 불법 점거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주정부의 주도 아래 허물어졌다고 전한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불법 점유물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인도에서는 종종 일

어나고 있다. 이유는 필요 없다. 힌두교 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리 오래된 유산이
라도 모조리 부셔버려야 한다.

이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가득한 인도의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드디어 나왔다. 10년 넘게 인도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였고, 사
회학을 전공한 본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았다.

저자가 인터서브 선교사라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역사학자였고,
선교사로서도 역사학자인 저자가 인도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배운 생생한 경험을
들려준다. 너무나도 유사한 인도와 한국의 근대사—증오와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인 북한과 공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도록 이끈다.

무엇보다도 적극 추천하는 이유는 부담 없는 책의 분량이다. 더불어 엄선한 큼
직한 컬러 판 사진까지 있어서 정말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인문서라는
생각이 든다. 

위나라 선교사 (인도 무슬림권 선교사)

생태기도

INCA(인터서브 생태행동) 팀

작년 한 해 INCA는 생태적 목상을 나누었고, 올해는 생태적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창조주, 인간, 피조세계를 균형 있게 우리의 기도에 담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천지인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거울처럼 우리 안에 면면히 흘러 온 이 세계관을 성경으로 분명하게 조명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치유와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눈뜨고, 누리고, 감사하게 하소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을 주신 주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위로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

화학비료로 산성화되어 가는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하소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척이 재판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아 속히 멈추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무기 실험으로 고통받는 하늘과 땅, 물살이들의 고통이 멈추게 하소서.

인

산업 농의 재물로 땅을 빼앗기며 내몰리는 소농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치와 건강과 생계와 자존감을 지켜주소서.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낼 소명을 가진 젊은 농부들을 보내주소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인 터 서 브 프렌즈 통권 151호 2024 Spring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시아와 아랍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4년 봄호 통권 151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라

발행일 2024. 3. 25.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